불교대학 수강생 감소, 대안은 '교육목표 설정'

[진단] 위기의 불교대학, 돌파구는?

"강릉에는 현재 인구 20만에 천태종까지 포함하면 5개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이미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배헌영 강원불교대학 부학장

"많은 불교대학들이 학생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경쟁하면 서로 피해만 볼 것입니다."

- 원주불교대학 학장 해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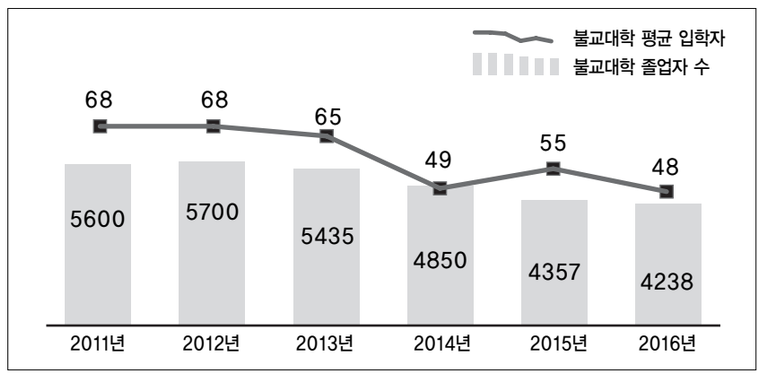
2월 21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2017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쏟아진 불교대학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불교 교육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교대학 수강생 수년 새 급감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처음 입문한 신도들을 위한 신도기본교육의 다음 단계로 조계종 신도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핵심 신도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과정으로 연간 96시간 이상의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불교대학 수강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8곳의 불교대학에 7300명이 입학했으며, △2012년 121곳에 8200명 △2013년 126곳에 8127명 △2014년 138곳에 6713명 △2015년 146곳에 8010명 △2016년 139곳에 6760명이 입학했다.

전체 입학자 수를 보면 연도별 등락에 따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불교대학 평균 입학자 수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68명에서 2013년 65명, 2014년 49명, 2015년 55명, 2016년 48명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일선 불교대학에서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받을 사람은 이미 다 받았다?

불교대학 수강생들은 왜 줄어들까. 화성 신흥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한 포교사는 "스님이 포교와 신도교육에 열심히 나서지만 예전에 비해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불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미 교육을 받을 사람은 다 받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대학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6개월 과정인 신행불교대학이다. 신행불교대학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불교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찰에서 2018년 6월까지 운영되는 임시 단기과정이다. 교강사를 두지 않아도 조계종 디지털대학의 동영상 강의나 사찰 주지 스님 강의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시간도 72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졸업자 혜택은 기존 불교대학과 동일하다. 포교원은 접근성을 높여 그동안 기존 불교대학에 가지 못한 불자들이 신도전문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 불교대학 측은 우려를 표했다. 울산 정토사불교대학 학장 덕진 스님은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단기 교육 후 동일한 자격을 주어 배출하면 기존 불교대학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이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며 "한시적 시행이며 기존 불교대학과의 중복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온 · 오프 복합, 자격 목표 설정 필요

그렇다면 기존 불교대학은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을까. 불교교육 전문가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제시와 명강사 양성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D불교대학 관계자는 "불교대학들이 현재 사찰 내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찰 밖으로도 시선을 넓혀야 한다"며 "온라인의 경우 상대평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불교대학 입학동기가 대부분 졸업자 추천이란 점에서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개선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조계종 포교현황을 살펴보면 등락이 있는 입학자와 달리 졸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도 필수연수 미이수와 학업성취도 미흡으로 인한 중도하차로 졸업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개선을 들며 △교육자 양성 △눈높이 교육 △자격증 등 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교대학 성패는 강의 질이 좌우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강사 양성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불교대학 입학생의 포교사란 목표설정이 모호해진 지금, 명상지도 등 다양한 자격 부여와 같은 비전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년이여, 108배 App으로 위안을"

조계종 포교원, '중년 마음거울 108' 선봬

연내 청년 위한 앱 개발도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도 쓸쓸한데…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왜 이리 많은지…."

'중년의 위기'다. 4050세대를 아우르는 중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돌봐야 할 이들이 많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시기로 꼽힌다. 더구나 요즘 중년세대는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의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중년세대가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은 최근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 앱은 실직과 불안, 일에 대한 압박과 가족 갈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중년세대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주체적인 삶을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앱은 자아실현, 자기발견과 건강, 가족관계, 일과 사회관계, 나눔과 종교의 대주제와 19개 세분화된 소주제에 나뉘어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차별과 편견을 모두 버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등 108개의 문구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화면에 나온다. 또 차분한 음악과 함께 남성과 여성 각각 2가지 목소리가 문구를 낭독한다.

이번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은 2012년 '어린이 마음거울 108'과 '청소년 마음거울 108', 2015년 '어르신 마음거울 108' 앱에 이은 네 번째 앱이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든 마음거울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마음거울 시리즈 앱 개발을 총괄한 원일훈 홍익대 교수는 "종교색채가 옅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중년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붓다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연내 청년들을 위한 앱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신행혁신운동과도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선출 비쟁사갈마, 직선제 적합"

총무원장 직선 대중공사, 공청회서 당위성 강조

"총무원장 선출과 같은 소임자 선출은 비쟁사갈마이므로 후보자 고지 후 1번 묻는 백이갈마(白二 w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직선제는 후보가 다수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율장에서 보면 백이갈마라 할 수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안팎에서 직선제를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는 2월 28일 서울시청 시민청서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前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율장에 언급된 다수결을 언급하며, 직선제가 율장정신에 가깝고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허정 스님은 "현전승가에서는 모든 사안을 대중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데 그 대중공사를 갈마라 한다. 갈마는 내용에 따라 쟁사(諍事)갈마와 비쟁사갈마가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은 소임자 선출, 결계 등에 사용되는 백이갈마다. 본사별로 같은 날짜에 포살을 실시하고 포살이 끝나면 투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허정 스님 법응 스님 박병기 교수 옥복연 소장

스님은 "소임자를 선출하는 비쟁사갈마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탈락한 후보자가 승단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비법(非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교관과 정책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고 후보자토론을 통해 토론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종단의 현실적 측면과 그간 경험으로 볼 때 구체적인 전략과 확고한 실천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승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른바 샤이혁신세력을 적극적인 직선제의 장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법응 스님은 직선제 관철을 위해 △불교적인지 △대중 호응도 △입법화 전략 △직선제 주장이 반 집행부라는 인식 문제 △추진세력 자체의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국내서 종교가 갖는 낮은 위상과 불교계 차별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은 종단 내 비구니 차별의 제도화를 비판하고, 성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선 대중공사는 '청정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발기인으로는 승가 116명, 재가 153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단장은 박병기 교수가 맡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찾아 53선지식 만난다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사찰순례를 진행하고 녹색사찰 유형을 개발, 유형별 모델 사찰을 선정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지혜실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녹색불교&녹색사찰 프로젝트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사찰순례'를 진행한다.

이는 53개 사찰을 방문, 녹색사찰 유형을 개발하고 유형별 모델 사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찰림의 관리와 활용, 사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단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찰의 지역사회 기여 등 면에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버드나무 10만 그루 심기 국민 캠페인'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버드나무 3만 그루를 심는다.

이밖에 기존 프로그램인 숲해설가 양성과 파견활동, 재정안정화와 공간마련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 회원배가 운동 등 전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